

1월 20일 화요일 / 이집트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아이들은 거리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특히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체포될 위험 속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이집트의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21일 수요일 / 예멘

예멘은 현재 세 개의 서로 다른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어느 쪽도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감시, 구금, 고문, 학대, 심지어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곳의 가정교회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멘에 평화와 정의를 허락하시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예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22일 목요일 / 몰디브

몰디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몰디브 국민에게는 낙원이 아닙니다. 몰디브는 자국민이 100% 무슬림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된 채 고립됩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독교인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모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몰디브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월 23일 금요일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대부분의 성도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이나 기독교 TV 채널을 통해 신앙을 공유하지만, 이 또한 발각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우디의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찾고, 성경 자료와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24일 토요일 / 카타르

카타르의 기독교인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이거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예배 장소는 도하 외곽의 종교 단지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카타르 자국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또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적발되면 즉시 추방당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타르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1월 25일 주일 / 인도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은 힌두교도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개종 금지법’은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아 신앙 활동을 막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법 위반 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종 금지법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교회 지도자들이 혐의를 벗고, 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 / 에티오피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 같은 무장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감시하고, 예배 중에 교회가 공격당하거나 재산이 파괴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자매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목회자와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평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 라오스

라오스에서 가정교회는 공산주의 당국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미친 영혼'을 가진 반역자로 여겨집니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애니미즘을 믿는 라오스 남부에 사는 난* 씨의 집은 귀신 들린 집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와 마을 신자들의 도움으로, 난* 씨는 다른 땅에 새집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신자들이 용기를 내어 두려움 없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28일 수요일 /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카우카주에 있는 원주민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후아나는, 그리스도인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일부 원주민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 교육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성전을 폐쇄하고, 기독교인 가족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1월 29일 목요일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목회자들은 교회 활동, 특히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이센 목사

님의 가게는, 불만을 품은 지역의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믿지 않는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 가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1월 30일 금요일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탈레반 치하에서 점점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종자를 압박하거나 폭력을 가하며 심지어 살인을 통해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데, 무엇보다 여성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탈레반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비밀 신자들을 보호하시며 격려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월 31일 토요일 /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신자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슬람에 대해 배우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며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려는 기독교 신자들의 노력으로, 어린이들이 진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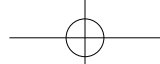
2026년 01월
VOL.

기도월력 285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 로마서 10:15 -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Doors
이제 박해받는 교회들을 섬기세요



1월 1일 목요일 / 북한

북한은 현재 사상 통제와 종교 박해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에서 지하 교회가 적발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를 비롯해 탈북민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과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고난 중에도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 중앙아프리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자마이 목사의 배우자 리프카투는 결혼 직후 풀라니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어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3일 만에 석방되었으나, 지역 사회의 차별과 고립이라는 '2차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0명 이상의 기독교 여성이 신앙을 이유로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리프카투를 비롯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안전과 안전한 심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1월 3일 토요일 / 리비아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리비아는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무슬림의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적이지만 위성 TV에 기독교 프로그램이 나오고 아랍어로 된 기독교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월 4일 주일 / 쿠바

1959년 이후 공산당이 장기 집권 중인 쿠바는 공산주의 이념을 앞세워 교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 목소리와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체포와 투옥, 교회 및 사업체 폐쇄 등 정부와 동조자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가정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5일 월요일 / 모잠비크

모잠비크의 기독교인과 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고, 수많은 성도가 살해되거나 폭력을 피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이러한 피해 실태는 은폐되거나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성도들이 공포와 위협, 깊은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1월 6일 화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Arise Africa Campaign)

이슬람 무장단체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 인두세(무슬림에게 내는 세금) 납부, 아니면 죽음이나 추방"이라는 세 가지 선택을 강요하는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의 성도와 목회자가 위협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7일 수요일 /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정부는 에리트레아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수니파 이슬람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 단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 공공 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8일 목요일 / 튀르키예

튀르키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관계 단절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취업이나 망명 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개종한 성도들이 가족에게 버림받지 않고, 차별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9일 금요일 / 소말리아

전체 인구 1,700만 명 가운데 겨우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은 현재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Al-Shabaab)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고 있으며, 발각되는 즉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당하는 수많은 위협과 공격에서 극소수의 소말리아 기독교인을 지켜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10일 토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동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연합민주군(ADF)과 같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11일 주일 / 미얀마

2021년 초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이전보다 더

큰 폭력과 엄격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으며, 교회나 난민 캠프, 심지어 정글 깊은 곳으로 피신하여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성도들이 쿠데타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견뎌내고,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12일 월요일 /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이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갱단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복음 전도와 지역 봉사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멕시코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박해를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월 13일 화요일 /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차원에서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의 교회 급습이 잦아지면서 성도들은 심문을 당하거나 지인을 밀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투옥되는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강화되는 정부의 단속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 / 수단

수단은 현재 세계 최대의 난민과 기아 위기의 중심지이며, 그 분쟁 속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기독교인은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교회가 피해를 보았고, 기독교인들이 납치 및 살해당했습니다. 수단의 내전이 속히 종식되어 무고한 희생이 멈추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구호와 보호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15일 목요일 /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수) 발표

지난 30년 동안 오픈도어는 박해 현장의 변화를 자세히 예의주시하며,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목)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국내 기독교 방송, 언론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시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모든 진행 과정을 순조롭게 하시고, 한국교회 선교 실무자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16일 금요일 / 이란

이란 정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

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가 급습당하고, 많은 성도가 투옥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란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월 17일 토요일 / 차드

보코 하람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확산함에 따라, 차드의 많은 기독교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시골 지역에서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가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18일 주일 /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은 소수 집단, 특히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2024년 6월에는 한 노인이 꾸란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쓰고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성모독법을 둘러싼 파키스탄의 사결정권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슬람 결혼을 강요당하는 파키스탄의 여성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19일 월요일 / 브루나이

브루나이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허가받은 6개 교회 외에는 어떤 교회의 등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교회조차도 설교 내용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관해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판물은 정밀 검열을 거쳐야 하며, 성경 등 종교 자료의 수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교회가 정부의 감시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